

목포권



지난 26일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열린 제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요트경기에서 참가선수들이 오색 돛을 달고 힘차게 바람을 가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운영미숙 투성이로 끝난 해양스포츠 제전

'해양 목포' 부각 미흡

레이저 쇼 예산낭비 논란... 관객객 이탈 사태도

목포에서 열린 제3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목포를 부각시키는데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해양소년단이 주최한 해양스포츠제전이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 이어 3번째로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목포평화광장 앞바다와 문화예술회관, 유달유원지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제전에는 선수와 관계자, 동호인 등 1만1천여명이 참가해 요트와 카누 등 정식종목 5개, 고무보트와 바다수영 등 비공식종목 3개, 오토보트와 윈드서핑 등 특별종목 2개 등 총 10개 종목을 놓고 열띤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행사의 주관은 맡은 목포시는 국비 2억원, 도비 4억원, 시비 7억 원 등 총 1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모래사장 조성에 3천만원, 편수영장에 2천여만원 등 대부분 일회성 시설물에 투입했다. 특히 에너지 낭비를 부추기는 레이저쇼와 불꽃 행사를 위해 대형업체에 광장 앞바다와 문화예술회관, 유달유원지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제전에는 선수와 관계자, 동호인 등 1만1천여명이 참가해 요트와 카누 등 정식종목 5개, 고무보트와 바다수영 등 비공식종목 3개, 오토보트와 윈드서핑 등 특별종목 2개 등 총 10개 종목을 놓고 열띤 경쟁을 벌였다.

나마 설치된 정수기도 전기공급이 안 돼 무용지물이었다. 이로 인해 관객들이 경기장을 떠나는 사태가 벌어졌고 선수들은 응원단이 없게 상태에서 외롭게 경기를 치러야 했다. 선수단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는 울진과 삼척에 비해 체력장이 좁고 연습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이 부족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목포시의 미숙한 행사 운영을 지적했다. 목포시의원 N모씨는 "항구적이 아닌 일회성 시설물에 많은 예산을 소비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100여 척이 입출항 하는 항로에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경기장을 설치한 것도 문제다"고 말했다. /목포=이상희기자 lsh@

목포 ~하의도 6번째 쾌속선 취항

내일부터 하루 2차례 운항

목포항과 신안 하의도간 쾌속 여객선이 6번째 취항한다. 신안군은 30일 신안군 하의면 읍곡 선착장에서 지역 유관단체장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엔젤호 취항식을 갖고 다음달 1일부터 하루 2차례 운항하기로 했다. 이번에 취항하는 엔젤호는 152명이 승선할 수 있는 120t 규모로 최대속력은 27노드이다. 목포에서 안좌 북호를 경유해 하의와 신의, 상태도까지 1시간 10분이 소요돼 현재 운행하는 일반 여객선보다 1시간 20분이 단축된다. 목포~하의도 쾌속선 운항은 지난

98년 콘티넨탈호 취항을 시작으로 지난 2006년까지 5척의 선박이 운항했으나 몇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경영수지 악화로 모두 폐업한 바 있다. 군은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 연간 군비 3억원의 지원하기로 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하의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쾌속선 취항에 따라 운항시간 단축, 증편운항에 따른 목포 등지에서 체류시간 증가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효과는 물론 가정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 하의면 인구는 2천여명이며 신의면에는 1천8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신안=조완기자 wncho@

증도 제 3회 갯벌축제

내달 1일 오전해수욕장~머드하우스 짓기 등 다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신안군 증도 오전해수욕장에서 다음달 1일부터 나흘간 '제3회 갯벌축제'가 열린다. (사진) '갯벌! 오라! 보라! 느끼라!'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관광객들이 직접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머드하우스 짓기'와 갯벌속에 있는 보물을 찾는 '갯벌속 황금찾기'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황금찾기 이벤트는 1~2일 2회에 걸쳐 진행되며 갯벌 속에 숨겨진 황금 37.5g(10돈)은 찾는 사람의 몫이다. 또 '전남도 도시자연 친목 바다수영대회'를 비롯해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 펼치는 갯벌 풋살, 갯벌 장애물 단축마라톤 대회, 어린이들 동반한 가족을 위한 갯벌 생태학습, 갯벌 놀이터, 셀프 머드마사지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신안=조완기자 wncho@



목포생활도자박물관

'흙, 불, 혼의 교감' 전

목포생활도자박물관은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도자 작품 500여 점을 전시하는 '흙, 불, 혼의 교감'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무안 분청사기를

비롯해 (해남)자기, 나래모아, 해도자기 등 공방과 업체가 자랑하는 대표 도자기를 선보여 목포 도자기의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자기 분야 작품은 무안요, 월송요, 영산요, 우후요 등에서 내놓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교통문화 바로잡기 목포경찰서 최우수

목포경찰서(서장 한기만)가 '08년 상반기 교통질서 확립 평가'에서 전남도내 최우수경찰서로 선정돼 경찰청장 표창을 받는다. 목포 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신호위반 등 무질서한 목포시의 교통문화

를 바로잡고자 '교통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목포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부단한 노력 결과로 지난해 대비 7월말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915건에서 760건으로 155건(16.9%) 줄었다. 교통사망사고는 23명에서 14명으로 9명(39.1%) 감소해 교통사망사고 감소부문에서도 도내 1위를 차지했다. /목포=이상희기자 lsh@

/ 새 얼굴 /

"화합 우선... 감동주는 행정 펼칠 것"

유동수 신안군 부군수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감동을 주는 신뢰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신임 유동수(55) 신안 부군수는 "무엇보다도 조직의 안정과 직원간의 화합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출신인 유 부군수는 전남대 토목공학과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전남도의 회사무차 경제건설 전문위원, 전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광자씨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취미는 낚시. /신안=조완기자 wncho@



무안 경찰전·의경 한마음 대회

무안경찰서(서장 민갑룡)는 30일 방운면 조공나무에서 '2008년도 하계 전·의경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명량산 내부 생황 체육회 주최와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한 이날 전·의경 체육대회는 전·의경 20여명과 인우회 및 어머니회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성수기자 dss@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Festival. ₩25,500부터 (7,8,9월에 한하여). 위 가격은 1인 식비를 기준으로 하며 10% 세금이 별도 부가됩니다. 대표전화: 062-228-8000. 예약문의: 062-228-4711~2.

토지개발전문가과정 광주교육 8월 5일 개강. 교육기간: 2008년 8월 5일부터(10주) 매주 화요일 19~22시. 교육장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교육장. 교육내용: 부동산개방계약, 부동산개방계약, 부동산개방계약, 부동산개방계약.

대중법률경매(주). 부동산 경매계의 지부실! T. 062)227-6666 011-646-2226. 사원모집. 투자 및 배우면서 일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현역.

대승공인중개사. 수완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전문. 토지매매, 수완지구 333-1(명동면) 60㎡, 수완지구 333-1(명동면) 60㎡, 수완지구 333-1(명동면) 60㎡.